

numbers 제 100호



주요 내용

2021.06.18

1. 이번 주 주제 :

- 우리나라 국민 암 걸릴 확률 3명 중 1명 이상!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군대 내 여성 간부(부사관, 장교) 5명 중 1명, 성희롱 피해 경험 있다!

- 코로나19 이후, '체중 3kg 이상 늘었다' 46%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일반사회 통계

우리나라 국민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 시, 암 걸릴 확률 3명 중 1명 이상!

지난 6월 7일, 2002 한일월드컵 4강의 주역인 전 축구선수 유상철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유상철의 비보가 들려온 날은 아이러니하게도 ‘암 생존자 주간’(매년 6월 첫째 주) 바로 직후였다.

유명인이 암으로 운명을 달리한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되고, ‘누가 암에 걸렸다더라’, ‘누가 암으로 돌아가셨다더라’ 하는 이야기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을 만큼 암은 우리에게 익숙한 질병이다. 또한, 통계 작성 이래 단 한 번도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를 놓친 적 없는 끈질기고 무서운 질병이기도 하다.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도 연간 22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암 예방 및 관리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말에 발표한 ‘2018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에 달한다. 즉 앞으로 3명 중 1명 이상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이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가까이 있는 암.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100호에서는 암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 암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위로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주가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가 100호를 맞았다. 그동안 부족하지만 100호까지 발행될 수 있도록 저희 보고서를 아껴주시고 기도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목회데이터연구소 임직원 모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린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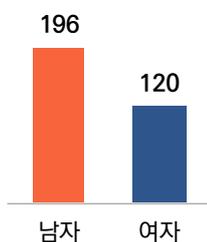
우리나라 사망자 4명 중 1명 이상, '암'으로 사망!

- 통계청의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 질환, 폐렴으로 그 중 암이 전체 사망자의 28%를 차지한다.
-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남자가 여성보다 1.6배나 높다.
- 지난 10년간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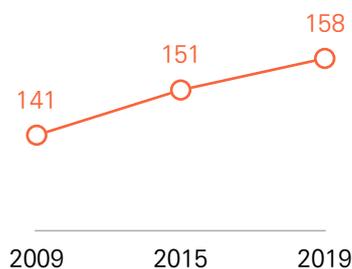
[그림] 사망 원인 구성비(2019년, 상위 5위) (%)



[그림] 암 사망률(성별) (2009~2019)



[그림] 암 사망률** 연도별 추이 (명) (2009~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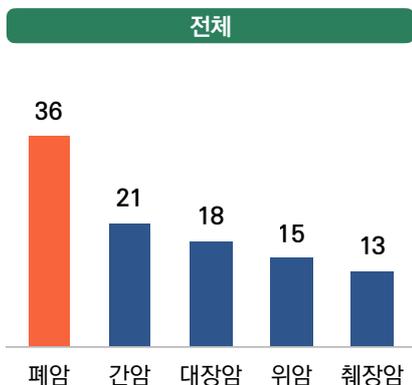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19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20.09.22.
**사망률 : 인구 10만 명당 사망 인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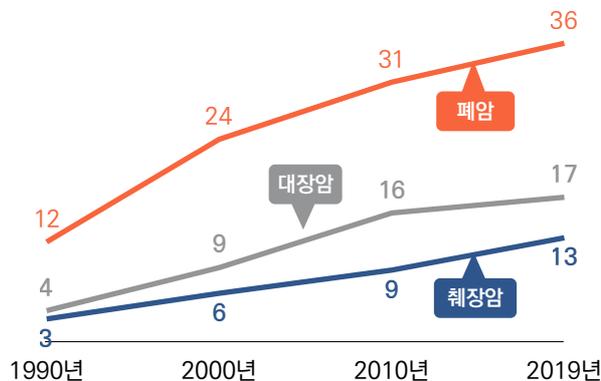
● 암에 의한 사망률, 폐암이 가장 높아!

- 암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은 폐암(36명)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간암(21명), 대장암(18명), 위암(15명), 췌장암(13명) 순으로 높다.
- 주요 암 중에서는 폐암, 대장암, 췌장암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림] 주요 암 사망률 (상위 5위) (명)



[그림] 주요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추이(1983-2019)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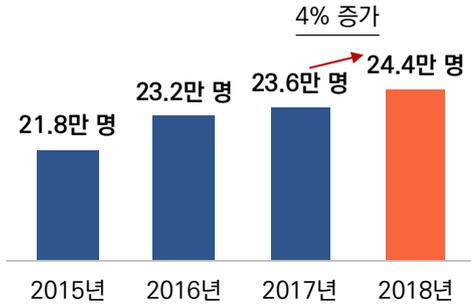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19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20.09.22.

● 신규 암 환자 매년 증가 추세!

- 보건복지부의 2018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8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는 24만 4천 명(남자 12만 9천 명, 여자 11만 5천 명)으로, 전년도(23만 6천 명)에 비해 4% 증가하였다.
- 2015년 이후 신규 암 발생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신규 발생 암 환자 수(연도별)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암 유병자 200만 시대,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자는 꾸준히 증가', 2020.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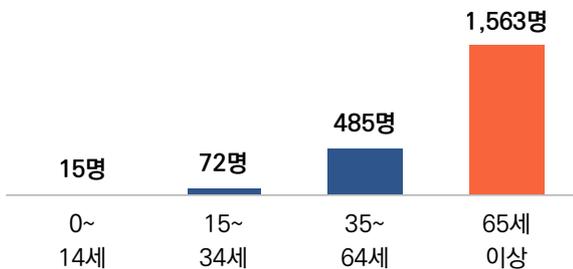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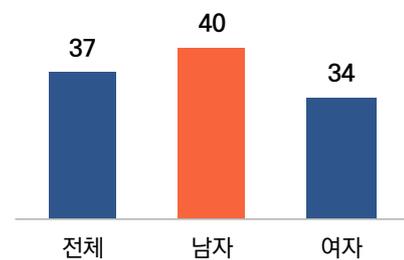
기대수명(남녀 평균 83세)까지 생존 시, 암에 걸릴 확률 37%

- 연령별 암발생률을 살펴보면, 10만 명당 발생 인구 수를 뜻하는 조발생률이 0~14세는 15명인데 반해, 15~34세 72명, 35~64세 485명, 65세 이상 1,563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한다. 고령층에서 암 발생이 급격하게 많아지는 특성을 잘 보여준다.
-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지표가 암 발생 확률인데,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로, 젊은 시기에는 암 발생 확률이 낮지만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그 확률도 높아져, 남자가 기대수명(80세)까지 살 시에는 40%, 여자(기대수명 86세)는 34%의 확률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연령대별 암 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암 발생자 수 : 조발생률)



[그림] 기대수명까지 생존 시 암 발생 확률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암 유병자 200만 시대,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자는 꾸준히 증가', 2020.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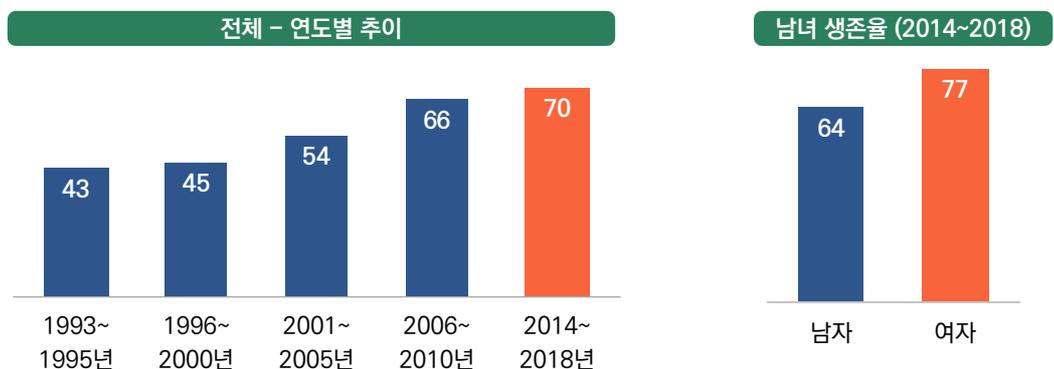
3



암 환자, 5년 이상 생존율 70%!

-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5년간(2014~2018)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70%이며, 생존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생존율은 약 10년 전(2001~2005)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생존율(54%)과 비교할 때 1.3배(16%p) 높아진 수준이다.
- 남녀별 5년 생존율은 여자(77%)가 남자(64%)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 5년 상대 생존율**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암 유병자 200만 시대,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자는 꾸준히 증가', 2020.12.30.

**5년 상대 생존율 : 상대생존율이란 관심 질병을 가진 환자의 관찰생존율을 동일한 성, 연령대의 일반 인구의 기대 생존율로 나누어 구한 값으로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의 효과를 보정해준 생존율을 의미

● 우리나라 위암 생존율, 미국의 2배, 영국의 3배

- 우리나라 암 환자의 생존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비교적 양호하다.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은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그림] 주요 암의 5년 순 생존율** 국제 비교 (%)

구분(%)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결장	직장				
한국	69	72	71	25	87	27	77
미국	33	65	64	21	90	17	63
영국	21	60	63	13	86	13	64
일본	60	68	65	33	89	30	71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암 유병자 200만 시대,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자는 꾸준히 증가', 2020.12.30.

**5년 순 생존율 : 암이 유일한 사망원인인 경우 암환자가 진단 후 5년간 생존할 확률. 연령구조가 다른 지역·기간별 비교 위해 연령표준화한 수치로, 암생존율 국제 비교 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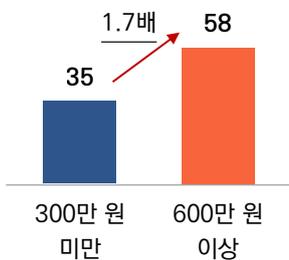
4



암 최초 발견에 소득불균형 존재, - 소득이 높을수록 암 초기 발견을 높고 전이 비율 낮아

- 암 생존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는 하나, 암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다. 그런데 암 진단 시 종양의 진행 단계와 전이 여부가 환자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기에서 진단받는 비율이 월소득 300만원 미만 환자는 35%인데 비해 월소득 600만 원 이상 환자는 58%로 월 소득이 높을수록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암을 진단받는 비율이 높았다.
- 또한, 최초 진단 시 암이 전이된 상태였던 비율도 월소득 300만원 미만은 18%인데 반해 600만 원 이상은 8%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그림] 1기 상태에서 암 진단 받는 비율
(월소득 300만 원 미만 vs 600만 원 이상)(%)



[그림] 최초 진단 시 전이 상태 비율
(월소득 300만 원 미만 vs 600만 원 이상)(%)



*자료 출처 : 올캔코리아, 암환자 495명 설문조사, 의사신문, "암 진단부터 치료 후까지...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 '뚜렷'", 2020.12.10.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368>)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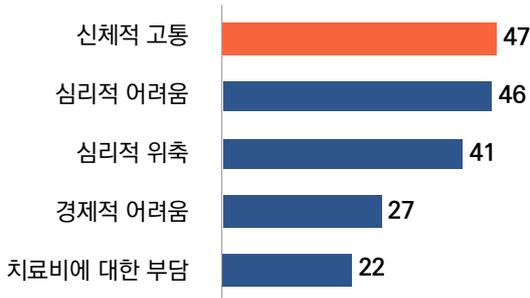
암 환자들의 암 진단 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가족 걱정’ 가장 커

- 암 환자들이 암 진단 시 걱정한 사항은(1+2순위 기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37%)과 ‘가족에 대한 걱정’(37%)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암 치료 시 힘든 점도 ‘신체적 고통’(47%)과 ‘심리적 어려움’(46%), ‘심리적 위축’(41%) 등이 ‘경제적 어려움’(27%)이나 ‘치료비에 대한 부담(2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면, 앞으로 암 환자의 심리적 건강을 위한 지원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암 진단시 걱정한 사항(1+2순위) (%)



[그림] 암 치료 시 힘든 점(1+2순위)



*자료 출처 : 올캔코리아, 암환자 495명 설문조사, 의사신문, "암 진단부터 치료 후까지...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 '뚜렷'", 2020.12.10.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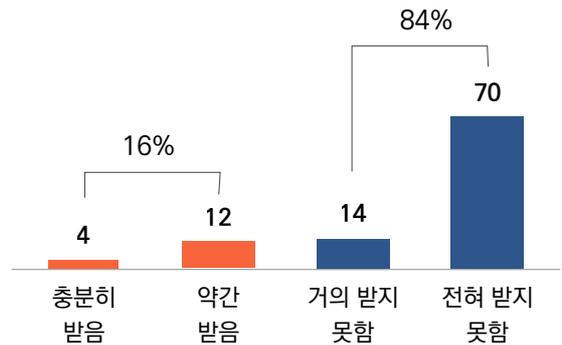
● 암 수술 퇴원 후 지역사회 기관 도움 받음, 6명 중 1명에 불과

- 암 환자와 가족들은 힘든 병상 생활을 마치고 퇴원 후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의 암 환자와 가족들이 퇴원 후 지역사회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은 경우는 6명 중 1명(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퇴원 후 지역사회 기관 도움 필요 여부 (%)



[그림] 지역사회 기관의 도움 받은 정도 (%)



*자료 출처 : 메디포뉴스, '암 재발 불안 및 걱정에서 달리는 퇴원 암환자들', 2020.12.11.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57256>) (국립암센터, 제2회 국립암센터 공공보건의로 심포지엄, 대장암/부인암/위암/유방암/폐암 진단 환자 중 암 수술 받은 지 2년 이내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8명 설문조사, 2020.01.08.-02.1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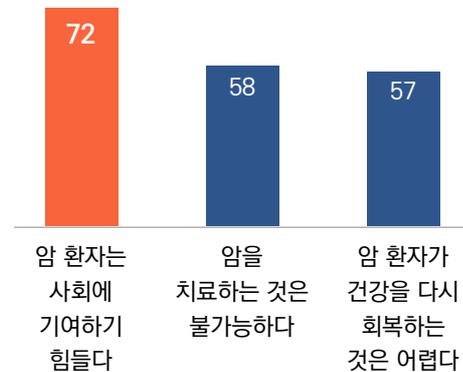
일반 국민, 암 환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 높아

- 암 환자들은 퇴원 후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비율도 매우 낮다. 암 생존율이 증가함에 따라 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도 높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정신 종양학 학술지 '사이코온콜로지'에 실린 '암 생존자의 복귀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요인' 논문에 따르면 유럽 암 경험자의 직장 복귀 비율은 약 62%에 달했지만, 국내 암 경험자의 5년 내 직장 복귀 비율은 31%로 절반에 그쳤다.
-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에 암 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 국립암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의 72%는 '암환자는 사회에 기여하기 힘들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57%는 '암 환자가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응답했다.

[그림] 암 회복 후 직장 복귀 비율 (%)



[그림] 암 환자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 조선비즈, "암환자 175만명 시대... '치료 후 사회 복귀' 비율 낙제점", 2019.05.30.(국립암센터, 암환자에 대한 인식조사;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 자료)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30/2019053002938.html)



시사점

신규 암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건강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암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뜻밖이다. 암 환자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암 치료 기관에서는 미국의 예를 들어 3가지 원인을 지적했다(한국중입자치료센터, '암이 증가하는 이유 3가지', 2018.3.19, https://www.kptcc.co.kr/g5/bbs/board.php?bo_table=c_story&wr_id=528).

첫째는 비만이 증가한 것이다. 미국 임상종양학회는 비만이 암 발생 위험 원인 1위인 담배를 곧 앞지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비만은 유방암과 대장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췌장암, 신장암, 갑상선 및 담낭암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둘째는 노인 인구가 늘어난 것이다. 심장병처럼 암은 주로 노인에게 영향을 준다. 미국의 경우 암 환자의 77%가 55세 이상이다. 따라서 노인 중에 암 발생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기대 수명이 83세로 높으며 연령별 암 발생률도 65세 이상에서 급증하는 통계(5쪽)가 수명 연장이 암 환자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셋째는 신종 암이 증가하는 것이다. 암에 대한 경각심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종류의 암은 증가 추세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인을 고려할 때 앞으로 암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암이 발생하면 환자는 많은 번민에 쌓이게 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암 치료비 염려, 남겨질 가족에 대한 걱정 등이다. 특히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심리적 위축이 심하다고 한다(7쪽). 현재는 초기에 암이 발견된다면 완치의 가능성이 높고, 치료 후에도 생존률이 높아져(70%) 더 이상 '암은 불치의 병'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음(5쪽)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암에 대한 완벽한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큰 사망 원인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암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암 환자가 느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불치의 병이라는 오해에서 오는 요인이 크다.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은 암이 더 이상 불치의 병이 아니며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이라는 의학적 설득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암환자의 5년 이상 생존율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지금은 7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10명 중 7명이 생존하고 있다. 특히 여성은 77%까지 생존한다. 우리나라 암환자의 생존율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

교회에서 돕는다면 이런 실제적인 생존율이 높은 상황에서 죽을 병이 아니라 여타 나올 수 있는 질병 중 하나라는 인식 전환에 도움을 주는 일일 것이다. 관련 전문가(의학자)를 불러 강의를 들음으로 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대응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암환자는 사회에 기여하기 힘들다' 72%, '암을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8% 등의 수치를 보면 암환자를 보는 일반인들의 시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암환자들도 고스란히 느끼고 있을 것이다.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이 지점인 것 같다.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차단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품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다시 일상 일에 복귀하도록 돕는 일 말이다. 한편으로 교인들에게 암에 걸려도 회복할 수 있다는 점, 암환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군대 내 여성 간부(부사관, 장교) 5명 중 1명, 성희롱 피해 경험 있다!
2. 코로나19 이후, '체중 3kg 이상 늘었다' 46%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군 성폭력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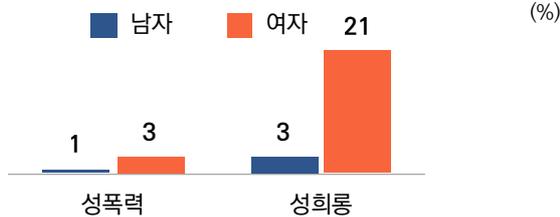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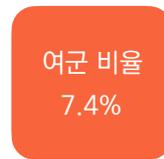
군대 내 여성 간부(부사관, 장교) 5명 중 1명, 성희롱 피해 경험 있다!

- 최근 공군 내 성폭력으로 인한 여 중사 자살 사건으로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의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기사 내용 중 주요 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 2018년 8~10월간 군대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 간부(부사관, 장교)는 21%로, 남성 간부(3%)의 약 7배로 높았다. 같은 기간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여성 간부 3%, 남성 간부 1%로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군대 내 남녀 간부의 성범죄 피해 경험(성폭력 vs 성희롱)



[그림] 군대 내 여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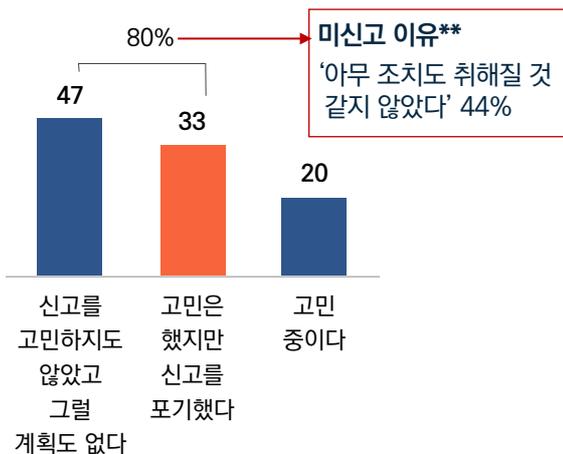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서울신문, 2021.06.08. '성폭력 피해 여군 10명 중 4명 신고나 상의할 엄두도 못 냈다',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남성간부 11,794명, 여성간부 6456명 총 18,250명 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09005002>

**자료 출처 : 조선일보, 2021.06.05. '군매뉴얼은 유명무실...일터지면 유별난 여군 낙인/핍박',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06/05/MQ7QDISDCZF4ZMQCALJPIZ6EY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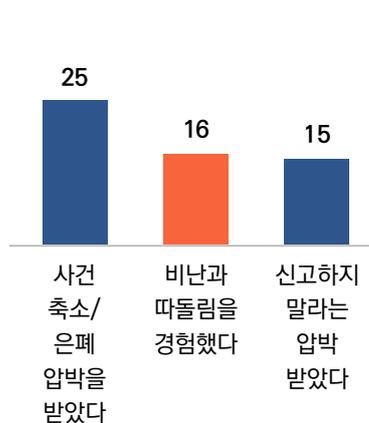
● 성범죄 피해 여군, '신고하지 못했다' 80%

- 성범죄 피해 경험 여군의 경우 신고하지 않은 비율이 무려 80%였으며, 미신고 이유로는 '아무 조치도 취해질 것 같지 않았다'가 44%로 나타났다.
- 또 피해 여군 4중 1명가량(25%)은 상부로부터 '사건 축소/은폐 압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성범죄 피해 여군의 신고 의향* (%)



[그림] 피해 사건 발생 후 경험** (각각에 대해 '그렇다' 응답률)(%)



*자료 출처 : 서울신문, 2021.06.08. '성폭력 피해 여군 10명 중 4명 신고나 상의할 엄두도 못 냈다',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남성간부 11,794명, 여성간부 6456명 총 18,250명 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09005002>

**자료 출처 : 조선일보, 2021.06.05. '군매뉴얼은 유명무실...일터지면 유별난 여군 낙인/핍박',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06/05/MQ7QDISDCZF4ZMQCALJPIZ6EYM/>

2. 코로나19 이후 체중 변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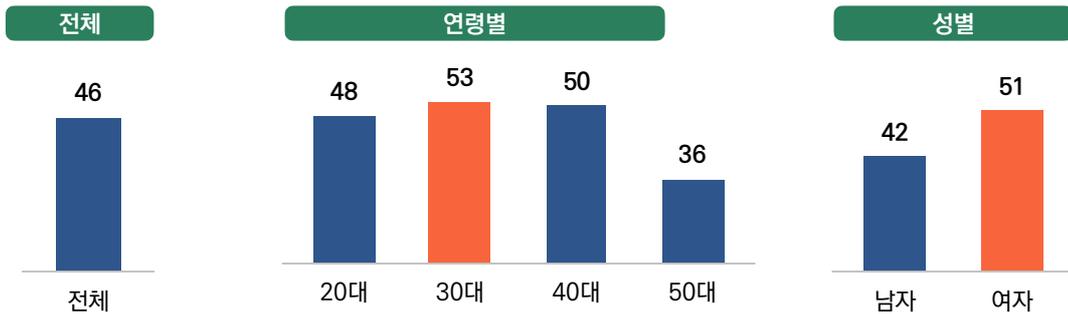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체중 3kg 이상 늘었다’ 46%

- 대한비만학회에서 최근 국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국민 체중 관리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 절반 가까이(46%)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몸무게가 3kg 이상 늘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3%로 전연령층에서 가장 높았고, ‘여성’이 51%로 ‘남성’의 42%보다 9%p 더 높았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이후 몸무게 변화(일반 국민) - ‘3kg 이상 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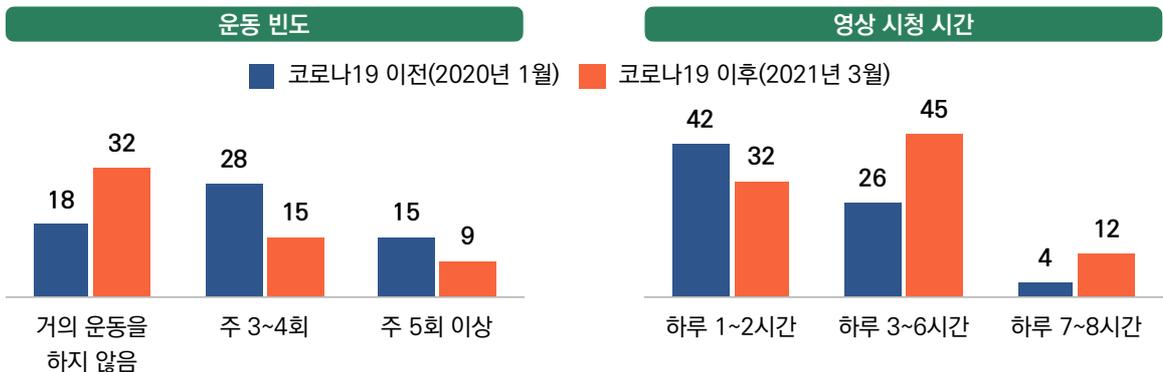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대한비만학회, ‘코로나19시대 국민 체중 관리 현황 및 비만 인식 조사’, 2021.05.06.(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2021. 3. 29~30)

● 코로나19 이후, 운동량은 줄고 영상 시청은 늘었다!

- 코로나19 이후 운동 빈도에 대해서는 ‘거의 운동을 하지 않음’ 32%로 응답해 코로나19 이전인 18%보다 14%p 높아 운동량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에 반해 영상 시청 시간은 늘었는데, 코로나19 이후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응답이 57%로 코로나19 이전인 30%보다 무려 27%p가 높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운동량은 줄고 영상 시청 시간을 늘어난 것은, 거리두기 및 집한 제한 등 정부의 제한 조치가 개인 삶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코로나19 발생 전후 활동 변화(운동 빈도 vs 영상 시청 시간)

(%)



*자료 출처 : 대한비만학회, ‘코로나19시대 국민 체중 관리 현황 및 비만 인식 조사’, 2021.05.06.(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2021. 3. 29~30)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 제452호\(2021년 6월 3주\)](#)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33호 \(2021년 6월 3주\)](#)

[정치 답데이터 ; 일자리·부동산 '盧 정부 데자뷰'...文, 지지율까지 판박이?](#)

한국경제_2021.05.29

일반

[우울증, 20대 여성의 자살 '원인'이 아니다](#)

한국일보_2021.06.12.

[남성차별 존재한다는 '이남자'... '남성 우월주의' 오류남과는 달랐다](#)

한국일보_2021.06.16.

[출산·병역 이해하지만... 취업문 앞에선 “우리가 손해”](#)

서울신문_2021.06.07.

사회

[20대 10명 중 6명 한국은 여전히 희망 없는 '헬조선' 사회](#)

한국일보_2021.06.14.

[희망은퇴연령 20·30연령층은 59세, 60대 이상은 72세](#)

폴리뉴스_2021.06.16.

[결혼정보회사 男회원스펙 ‘36~39세·174.6cm·연봉 5천’](#)

국민일보_2021.06.16.

[성인남녀 절반 “인프라 풍부한 수도권으로 이사 원해”](#)

한국일보_2021.06.17.

[커피시장 현황 ; 코로나19에도 식지 않은 '커피 사랑'...편의점표 커피도 인기](#)

연합뉴스_2021.06.16.

코로나

[코로나 종식 예상시점 ‘올12월 이후46% - 안될 것40% - 올해 내13%’](#)

폴리뉴스_2021.06.16.

[109일 만에 ‘1차 접종 25%’...프랑스·독일보다 빨랐다](#)

경향신문_2021.06.15.

교육

[영재·과학고 가려면 최소 6천만원...상위1% 사교육 판친다](#)

매일경제_2021.06.11.

[사립대 10곳 중 7곳 적자...적자 4200억 사상 최대](#)

매일경제_2021.06.13.

경제

["너무 잘 팔려 무섭다"...역대급 매출 백화점 왜 긴장하나](#)

매일경제_2021.06.14.

[블룸버그 평가 집값 거품 순위 1위 뉴질랜드...한국은 19위](#)

연합뉴스_2021.06.15.

*이슈 큐레이션 1_ 이준석 영향

1. [2030, 판을 뒤집다](#) 2021.06.12.(조선일보)
2. [국민의힘 최고위원 평균 50세, 민주당보다 3.8세 젊어져](#) 2021.06.12.(중앙일보)
3. [2030, 국민의힘 입당 러시 "호남도 폭증...눈물이 난다"](#) 2021.06.16.(연합뉴스)
4. [이대남 업고 혁신 돌풍 이어가겠다? "바보야, 문제는 20대 여성이야"](#) 2021.06.12.(조선일보)
5. [깜짝 세대교체 뒤엔...4연속 선거참패 '폐허의 역설'](#) 2021.06.14.(한겨레)
6. ['이준석 바람' 이끈 '이남자 현상'은 과대포장됐다](#) 2021.06.14.(한국일보)

*이슈 큐레이션 2 _ 살인의 전조, 스토킹(연합뉴스)

1. [스토킹 사건 절반, 성폭력·폭행으로 이어진다](#) 2021.05.25.
2. [스토킹, 여자만 당한다고요?...말 못 하는 피해자들](#) 2021.05.26.
3. [이제 스토킹은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2021.05.27.
4. [내 영혼을 파괴한 그 인간, 10월부터는 처벌받는다](#) 2021.05.28.
5. [과연 스토킹 제대로 막을까..."스토킹처벌법 곳곳 허점"](#) 2021.05.31.
6. [꽃, 보호명령 무시하면 징역 5년...美, 미성년 스토킹 엄벌](#) 2021.06.01.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예향교회, 연동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진주삼일교회, 지구촌교회, 창동염광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재)기독교선교해외봉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정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정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빛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중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문성준,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송으뜸,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상호, 이영선, 이완중, 이인성, 이정규, 이주일, 이창준, 이춘봉, 이현구,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응림,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용기, 최은아,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가나다순)

신규 후원 | 김숙정(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 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